



백제의 은제허리띠를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오원배 작 '은허리띠 장식'.



연꽃무늬를 크리스탈에 음각·양각 등으로 작업한 권영걸 작 '연화문진'.



종이로 만든 종이모형왕국의 '다보탑'.



종이모형으로 완성된 정현순 작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연꽃무늬 벽화에 새겨진 문양을 단순도안화해 필트기법으로 만든 노현경 작 쿠션과 파우치.



대구로 간 북녘문화유산

10월 26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 전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6월 13일~8월 16일 전시돼 호응을 얻었던 '북녘의 문화유산 - 평양에서 온 국보들'이 8월 29일~10월 26일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고아한 자태를 드러낸다.



'관음사 관음보살'.

대구 전시 역시 서울 전시와 마찬가지로 북녘의 대표적인 중요 문화재 90점이 출품됐다. 관음사 관음보살, 공양탑 등 불교관련 유물들이 눈길을 끈다.

'선사문화의 복원' '고조선의 재발견' '고구려 발해의 웅비' '고려 조선의 아름다움' 등 네 개의 큰 주제로 이루어진 전시에서 불교유물이 많이 포함된 코너는 '고려 조선의 아름다움' '신계사 향완'을 비롯해, '대자사 범종' '관음사 관음보살' '내강리 금동아미타삼존불' '청자연꽃무늬정병' 등이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전시기간동안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주 화~금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 4차례에 걸쳐 전시설명회를 개최한다.

9월 7일 오후 2시에는 이화관 前 전주박물관장이 '북한문화재의 현황'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053)768-6051 김지연 기자

문화재 응용상품 한번 써 볼까?



연꽃무늬 외당 문양을 모티브로 한 이효선 작 '합'.

문화상품 어떤 것 있나

국립부여박물관(관장 이내욱)이 7월 11일~8월 27일 개최한 기획특별전 '국립부여박물관 문화상품'으로 그 어느때보다 문화재를 기반으로 한 문화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재를 응용한 문화상품들은 미니어처 등 복제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립부여박물관이 지난해 11월 공모한 문화상품 수성작들은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서 나온 수작들로 문화산업계에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시를 통해 공개된 문화상품들을 살펴보고 요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교 문화상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국립부여박물관에서 공모한 상품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2005년에 실시한 일반공모전의 입상작들은 일상 생활용품들이 주류를 이뤘다. 금동광배 문양, 연꽃무늬 외당에서 추출한 연꽃무늬, 은제관구 미개 문양 등과 백제금동대향로에 새겨진 오악사는 토기상품으로 변신했다.

대상을 비롯한 작품 대다수가 문화재나 전통문

상품화 초기단계... 사무·생활용품 주류

연꽃·보살·달마 등 일부 이미지 주로 사용

불국사종이모형 등 놀이용품 눈길 끌여

양을 디자인에 활용했다. 대상을 수상한 보광퓨터의 펜꽂이 펜 메모꽂이 세트는 금동광배 문양을 차용해 제작했다. 귀면와는 메모꽂이와 립립통으로 만들어졌다. 동상 수상자인 노현경씨의 쿠션과 파우치는 연꽃 문양을 단순 도안화 작업한 연꽃무늬가 돋보인다.

연꽃무늬 외당의 문양을 모티브로 제작된 합은 보석함이나 인주합 등 다양한 용도가 가능하다. 칠지도와 연꽃무늬 외당의 무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형상화한 목걸이 귀걸이도 눈에 띈다. 이외에도 산수무늬 벽화를 모티브로 한 사무용품, 문양벽화의 문양을 활용한 스카프 등이 독특함을 자랑한다.

이번 일반 공모작들은 연꽃무늬 외당의 문양을 사용한 것들이 많다. 금동광배, 금동향로 등도 주요 이미지 소재로 활용됐다. 이처럼 문화재에서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문양류가 가장 손쉽다.

이번 공모작들에 사용된 이미지들은 국립부여박물관 소장품, 백제 사비시기 유물, 국립부여박물관 심벌 및 로고 등에 국한했다는 한계도 있어 다양화의 흔적은 찾기 힘들다. 다만 이러한 한계를 주지 않고 상품 개발의 기회가 있다면 개발할 수 있는 이미지와 응용 상품들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문

가들은 전망한다.

국립부여박물관의 노희숙 학예연구사는 "특별전에 출품됐던 상품들에 대한 구매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품 소수에 대한 확인 절차가 끝나는데대로 곧 상설전시에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혀 관람객들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같은 국립부여박물관의 노력 외에도 문화유산에 대한 상품화 작업은 꾸준히 있어왔다. 2003년 종이모형 디자이너 장영순 씨가 개발한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등은 그 섬세함에 혀를 내두르게 한다. 종이모형왕국에서 상품화한 불국사 등의 종이모형들도 눈길을 끈다. 천우비전의 단청 문양 퍼즐은 직접 채색 후 퍼즐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두 가지 즐거움을 선사한다.

종이모형류가 문화재들을 있는 그대로 접어 만들어 낼 수 있는 문화상품이라면 최근 문화상품들은 일상 생활용품으로 개발되는 경향이 짙다. 불교 문화상품으로 판매되는 것들은 도자기 연꽃등, 크리스탈 관세음보살, 미니 차걸이, 메모 캘린더, 향꽂이, 휴대폰걸이, 열쇠고리, 차걸이, 목걸이, 지갑, 모자 등이다. 불교계 소꿉물이나 관련 상품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되는 지극히 한정적이다. 이 상품들은 연꽃, 관세음보살,



금동광배를 형상화한 김소영 작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금동광배와 귀면와의 이미지를 본뜬 보광퓨터의 사무용품들.



연꽃무늬 외당 문양을 이용한 정민정 작 '화분'.

지장보살, 달마도 등으로 이미지 원형이 한정되는 경향을 드러낸다.

불교계에서 디자인 이미지 공모, 문화상품 개발 등에도 관심을 갖고 좀더 많은 문화상품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국립부여박물관에 문화상품개발 초대작가로 선정돼 은제 허리띠를 출품했던 오원배 교수(동국대)는 "불교문화재에서 디자인화 시킬 수 있는 문양을 비롯한 이미지들은 무궁무진하다"며 "불교계에서 동자승 등 캐릭터 개발 뿐 아니라 좀더 다양한 문양 개발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제21회 불미전 수상작 전시

8월30일~9월 5일 인사아트센터

제21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수상작들이 8월 30~9월 5일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선보인다.

30일 오후 2시 인사아트센터 2층에서 시상식을 시작으로 진행될 이번 전시회에는 대상작 남진세씨의 '석가모니불', 최우수상 김송자씨의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쓰여진 12각 찰상' 등을 비롯해, 장려상 노정용씨의 '연지에 핀 불심', 윤미성의 '한지 단청 문 불화액자' 등 수상작 54점이 전시된다. (02)736-1020 김지연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도자 염색 교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충남)이 2006년도 전통문화체험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에 개설되는 전통염색교실과 도자교실은 1개월 과정으로 총 8번의 교육이 마련됐다. 9월 5일부터 시작되는 도자교실은 화·수요일, 7일부터 열리는 전통염색교실은 목·금요일 오후 1시30분에 강의한다. 수강료는 무료. 강의 중 사용되는 재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전통염색교실은 차와 과일 등 식물염료를 이용한 명주염색을 배운다. 도자교실은 전통 도자기 제작 기법을 체험할 수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www.muuseum.go.kr) 교육마당에서 하면 된다.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 [금물] 수의로 하세요

(상표출원번호 0039174)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02)747-1760

전화 주시면 희망 상품 삼베 견본을 보내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견본과 상품이 다를 경우 100% 교환 환불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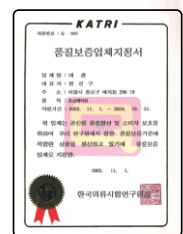
- 상품은 온라인 입금 후 원하시는 일자에 배송시켜 드립니다
- 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어떠한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품질의 삼베로 한땀한땀 정성드려 만들었습니다.
- 상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국의류시험연구원(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원단 성분분석표를 첨부해드립니다.
- 모든 상품은 오프나무상자에 포장해드립니다.

수의 가격표

상품호칭	제작방법	재질(성분)	원단가공순질	원사생산	판매가격(25%할인가)
안동포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안동	경북안동	3,800,000
1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안동	중국(산둥)	1,250,000
2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경남 남해	중국(사천)	835,000
3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중국	중국	475,000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2002년 한국의류 시험 연구원 O마크 획득



세시풍속(歲時風俗)

윤달(潤月)은 제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윤년중에 윤달이 텅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애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세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속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대,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성이 얼마남지 않았던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만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성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